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

- 한중일 네티즌의 갈등사례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류 석 진 (서강대학교)
(sjlew@sogang.ac.kr)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현실 민족주의와 어떠한 차별적 속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나타나는 한·중·일 네티즌들의 갈등 유형과 전개 양태를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민족주의와 관련한 한중일 네티즌의 특징과 정체성 모색을 위한 시론을 제시한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는 방식의 특징은 1)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담론의 응집도와 확산 속도가 크고 빠르다. 2) 갈등분야는 영토, 역사, 사회·문화이다. 역사는 영토와 중첩되어 각국의 기념일을 기점으로 역사교과서, 과거사 책임 등의 문제로 발현된다.

* 이 논문은 서강대학교 Critical Global Studies Institute 주최 “East Asia in a Global Memory Space” 국제심포지움(2017.9.21.-23, 서강대학교) 개막강연 원고(동아시아의 디지털기억공간과 온라인 민족주의)를 대폭 수정·보완하여,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2019 춘계특별학술대회(2019.3.15.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저항 민족주의를 넘어: 동북아 평화협력을 향한 한국외교의 새 지평 모색>에서 발표한 원고(동북아시아의 디지털 기억공간과 온라인 민족주의)를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심사평을 통하여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 특히 온라인 민족주의 개념의 취약성을 지적하여 준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8046537).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혐한, 혐일, 혐중 등 상대국에 대한 감정적 혐오와 배외주의가 다수를 이룬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될 때의 특징은 다음 세 차원에서 탐구될 수 있다. 구성적인 동시에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정체되지 않은 언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통된다. 전통적 주체와는 달리 특정한 집단으로 호명할 수 없는 네티즌의 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행동 양식은 전통적인 사회운동 혹은 집단행동의 논리와는 차별적인,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감염병적 특성을 보이기에 이에 대응하기도 매우 어렵다.

주제어 : 디지털 기억공간, 민족주의, 서구중심적 기억공간, 지구적 기억공간, 동북아시아 기억공간, 네티즌

I. 들어가면서

2019년은 3.1운동 백 주년이 되는 해이다. 백 년 전의 3.1운동은 마을장터, 광장 등 다양한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백 년이 지난 지금, 정부와 다양한 단체가 주도하는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통적인 기념행사가 한편에 있다. 다른 한편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 시민(혹은 네티즌)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념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백 년 전에는 독립선언문을 특정 개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하게 물리적으로 전달하여야 했다. 지금은 다양한 기념 메시지가 디지털 공간을 통하여 시공간을 뛰어넘어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이에 대한 반응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백 년 전의 공간과 21세기의 공간은 유사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차별적이다.

이 논문은 현실의 민족주의¹⁾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현실 민족주의와 어떠한 차별적 속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우선 지구적 기억공간에서 동북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지위와 위상을 확인한다. 둘째, 21세기 지배적 미디어 환경이 된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중·일 네티즌들의 갈등 유형과 전개 양태를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한다. 이에 기초한 분석과 해석

1) 제한된 논문 분량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민족주의를 이론적·학문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역사와 기억의 구성’이라는 측면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을 통하여 민족주의와 관련한 한중일 네티즌의 정체성 모색을 위한 시론을 제시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냉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구적 기억 공간'에서의 동북아시아가 가지는 차별적 시간대와 디지털 기억공간의 특이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는 방식과 전개과정을 동북공정과 독도문제, 사이버 임진왜란 등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시사점과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면서 글을 마친다.

II. 동북아시아와 디지털 기억공간

우선 민족주의를 논하면서 기억공간을 이야기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흔히 공통의 언어·신화·역사·기억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혈통적이고 고래로부터 존재한 것인지, 아니면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2002)이 주장하듯 근대적 '상상'의 산물인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이 중 역사와 그에 대한 기억 즉, 어떤 역사의 소재를 발굴하여 기억의 대상으로 호명하여 소환하고 그 소재를 어떠한 기억의 내용과 형태로 어떠한 공간에서 발현할지의 문제는, 구성적인 속성이 강하며 현재진행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치 2019년 한국에서는 3.1운동 백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으로 이를 호명하여 기념하고 있으나, 이 운동의 대상이자 다른 한 축인 일본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호명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관동대지진 시 조선인 학살을 기억 대상으로서 호명할 것인지 여부와 그 발현 방식이 차별적인 것이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각 국가 혹은 민족은 자신들이 선택하는 역사의 소재를 기억의 대상으로 호명하고, 특정한 발현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호명의 대상과 발현의 방식이 상호 간에 일치할 수도, 불일치할 수도 있다. 호명의 대상 자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대상이 일치하더라도 발현의 방식이 차별적일 수 있다. 이를 둘러싸고 '기억전쟁'(임지현 2019)이 벌어지고, 이 기억전쟁은 민족주의적 갈등의 핵심 지점이 될 수 있다. 폐쇄적·독선적·배타적 민족주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존가능한 민족주의가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민족주의가 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주체가 어떤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호명·발현하고, 어떤 공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통/소비 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체계적인 이데올로기라 할 수 없으며, 역사적·사상적으로

다양한 이데올로기(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등)와 결합하면서, 진보/반동·보수, 해방/억압, 배제/포용의 양면적 특성을 보여왔다. 민족주의 앞에 어떤 용어와 결합하는 지에 따라 속성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민족주의로 표출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기억의 구성 방식과 발현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족주의를 기억공간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억공간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지리적인 공간의 속성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기억공간의 매체적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공간의 측면에서 기억의 문제를 일국적 차원에서 제기하느냐, 지역적 차원에서 제기하느냐, 혹은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하느냐가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발현의 형식과 내용은 발현의 매체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내셔널한 기억방식과 트랜스내셔널한 더 나아가 지구적 기억방식은 매우 상이하며, 어떤 방식의 기억을 어떠한 매체에 의존하여 생산/유통시키는가가 민족주의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한다.

1. 지리적 기억공간으로서의 동북아시아

냉전 시기, 기억은 각 국가 혹은 민족이 속한 진영 논리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정치 사회적 쟁점이 되지 못하였기에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이 미미하였다. 반공이라는 국사가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민간인 학살 등의 인권 문제와 제국 시절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은 망각 혹은 은폐의 대상이었다. 일국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정부의 해체를 이끌어낸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인권 탄압과 제국시절의 기억들이 발화/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된 냉전의 해체를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민주주의 공고화의 시기를 거치며, 제주 4.3, 노근리 학살, 거창 양민 학살 등의 정부 수립 전후의 기억들이 분출하며 ‘기억의 민주화’가 시작되었고, 제국 시절의 강제노동, 위안부 등의 문제도 한국의 개별국가 차원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가히 ‘기억의 시민권’이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일국 차원에서의 기억 공간의 속성 변화가 일국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의 냉전의 해체와 맞물리며 기억은 새로운 공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지구적 차원에서 식민주의, 전쟁, 제노사이드 등에 대한 서구중심적인 이해를 넘어 ‘지구적 기억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 탈서구중심적인 기억 레짐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구적 기억공간’의 형성 노력, 즉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기억의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기 시작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지구적 기억공간’은 탈냉전으로 인해 이념대결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좌우 이념대립에 함몰되어 있던 민족주의 요소들이 부각되는 계기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냉전 시기 한일 간 식민(혹은 제국)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 기억은 한미일 동맹 구도에 묻혀 있었고, 중일 전쟁 기억에 대한 갈등(예를 들어 난징에 대한 기억) 등도 냉전 구도에 묻혀 있었다. 탈냉전 이후 홀로코스트의 절대성을 넘어서, 소련 적군으로 상징되는 스탈린주의 테러, 식민주의 제노사이드, 제국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쟁점들이 트랜스내셔널한 기억 공간에서 경쟁적으로 유통되고 다양한 기억들이 서로 얽히고 섞이면서(entangled) 기억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이 기억공간은 민족주의의 부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였지만, 역설적으로 민족국가와 민족주의의 경계를 넘어서는 기억이 서로 만나고 갈등하면서 새로운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민족과 국가를 단위로 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이기도 하면서 피해자이기도 하고, 같은 민족 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도되기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이 지구적 기억공간이다. 지구적 기억공간은 특수한 국가/민족의 문제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인권/정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지구적 기억 공간의 등장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첫째 “이차대전 직후 민족주의를 떠받치는 기억은 ‘희생자의식’보다는 ‘영웅주의’에 대한 기억이었다. ... 전 지구적 기억공간과 트랜스내셔널한 공공영역의 등장으로 약자, 희생자, 피억압 민족 등에 대한 공감과 동정의 여론이 확대되면서, 민족적 영웅서사는 호소력과 매력을 잃어 갔다”(임지현 2016.12, 341-342). 영웅주의적 민족주의 기억과 서사로부터 희생자에 초점을 맞추는 민족주의 기억과 서사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강제노동, 위안부, 학살 등이 기억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지금의 현실에서 새롭게 호명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일국 차원에서조차 마찬가지이며, 제주 4.3, 노근리와 거창양민학살 등의 사건이 희생자를 주체로 호명하며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특정 국가의 “역사 의식에 대한 ... 이웃 국가들의 감수성이 더 예민해졌던 것이다. ...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 교과서의 공식 기억이 일본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의 기억 공간에 배치되자, 과거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예민한 동아시아 차원의 기억의 회로를 통과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일본 국내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트랜스내셔널한 감수성이었다. ... 동아시아 기억 공간의 형성과 더불어 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과거를 망각하거나 왜곡하는 데 대한 비판적 감수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졌”다(임지현 2019, 294-295). ‘훨씬 더 예민한 동아시아 차원의 기억의 회로’는 디지털 기억공간의 등장으로 더욱더 예민하게 되었다. 냉전 시기 기억의 회로는 국가대국가 혹은 정부대정부의 기억 정리 방식이라는 비교적 단순하고 편의적인 기억 방정식에 의존하였다. 반면, 탈냉전 시기에는 ‘기억의 민주화’와 더불어 디지털 기억공간에 새롭게 등장한 네티즌들의 존재로 인하여 간단한 기억방정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고차원적 기억방정식으로 바꾸었다.²⁾

이러한 전지구적 기억공간에서는 “트랜스내셔널한 기억들 안에서 탈영토화하는 기억과 재영토화하는 기억이 가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관계적 기억을 중심으로 어떻게 서로 경합하고, 전유하고, 타협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가를 추적”(임지현 2016.12, 345)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의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발현 방식에 있어서도 바로 탈영토화하는 기억과 재영토화하는 기억이 중요하다. 탈냉전 시기인 21세기에 탈영토화하는 기억은 무엇이고 재영토화하는 기억은 무엇인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고 정립되고 있는가?

지구적 기억의 연대와 소통을 추구하는 지구적 기억 공간에서 본다면, 본원적으로 유럽, 동(북)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의 개별적인 지역적인 공간(topos) 혹은 개별 국가와 민족의 기억이 표상하는 의미는 제한적이고 보편성을 띠기 어렵다. 개별 지역 혹은 국가와 민족의 기억이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구적 기억공간 속에 적절히 위치되어야 하고 다른 기억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냉전의 해체와 내면적 지구화³⁾의 추세 속에서도 동북아시아는 아직도 지구적 기억 공간에 진입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제 막 진입하려는 차별적인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 아직도 동북아시아에는 냉전과 식민제국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아에서의 기억은

2) 예를 들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비록 한국 내의 반대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기라는 특성으로 인해 국가가 강행할 수 있었으나, 2015년 위안부 합의, 2018년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은 한일 양국 내부의 강력한 반발로 집행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설적으로 말하자면,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가 탈냉전과 21세기적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면, 비준 동의의 과정은 불가능하였거나 매우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임지현은 내면적 지구화(internal globalization)를 ‘낮선 땅에서 낯선 기억들이 만나 공통의 기억의 장을 만들어나가는 현상’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홀로코스트, 식민주의 제노사이드, 스탈린주의 테러 기억들이 서로 얽혀 때로는 서로의 희생자의식을 같이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기억의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추적하고 있다. 출처: http://cgis.ac/bbs/board.php?bo_table=kor_seminar&wr_id=17 (검색일: 2019. 02. 28.).

내면적 지구화에 뒤늦게 합류한 ‘느림보(laggard)’라 할 수 있다.

2차 대전 시기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전쟁범죄, 강제노동, 위안부 등의 문제는 일국 차원에서 제기되었고,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인권과 전쟁범죄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지구적 기억 공간과의 접합을 ‘뒤늦게’ 시도하고 있다. 임지현의 표현대로, “2011년 12월 13일 뉴욕 쿠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에서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감동적인 조우는 이러한 지구적 기억에 동아시아의 기억이 새롭게 진입하는 사건일 수도 있다.”

동북아시아의 기억공간이 어떻게 지구적 기억공간과 조우하고,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제는 미확정적이며, 우리의 사고, 행동·전략에 의해 구성되어질 것이다. 아직도 동북아의 한중일은 민족국가의 틀에 메어있으면서, 자국의 이익과 특정한 관념에 존재론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매우 미숙한 수준과 양태를 보이고 있다.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제노사이드에 대한 기억의 설정 방식과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기억 설정 방식은 매우 차별적이며,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여 지구적 기억 공간에 위치시킬 것인지 등의 사례도 지구적 시간대와 기억공간과는 차별적인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다른 시간대와 기억의 공간·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기억공간과 기억방식은 여전히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며, 지구적 기억공간에 적절한 접합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2019년 현재 한일 간 강제동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민족주의적 한계와 지구적 기억공간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만의 2.28, 제주 4.3 그리고 오키나와 전투를 연결시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던 기억의 논리를, 인권과 정의 등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적 차원의 공통의 기억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미약하나마 고무적인 시도이다. 또한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추모하는 독일 행위예술가 군터 뎀니히(Gunter Demnig)의 ‘걸림돌(Stolperstein)’⁴⁾이 한국의 강제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평화디딤돌’⁵⁾이라는 형태로 경향 각지에서 재현되고 있는 현상 등은 한국이라는 일국 혹은 개별 민족의 기억이 ‘지구적 기억공간’에서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tolperstein> (검색일: 2019. 02. 27.).

5) 출처: <http://steppingstone.or.kr/> (검색일: 2019. 02. 27.).

2. 디지털 기억공간

이러한 동북아시아 기억공간의 시간적·환경적 특이성과 더불어 디지털 기억공간의 출현과 진화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현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는 양태와 결과에 대한 이론적 주장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가 세계시민사회론자들로, 현실공간에서의 민족주의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한 국가의 국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약화되고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보편성의 확대 경향 속에서 현실 민족주의가 지구화의 하위 담론으로 작용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시민들의 다층화된 정체성과 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치적·비정치적 단위들이 경쟁하는 전자적 중세(electronic feudal) 혹은 더 나아가서 종족주의(tribalism)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양 입장 모두, 민족국가와 현실 민족주의의 약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는 위로부터의 압력인 지구화를 주원인으로 상정하는 반면, 후자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인 전자적 중세의 출현 혹은 종족주의의 회귀 등을 주원인으로 상정하면서 양자 모두 현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는 약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둘째, 카스텔(Manuel Castells 2004)은 민족적 저항의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를 분석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는 현실 민족주의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이 인류의 다양한 불만을 불협화음으로 표출되는 장으로서 기능하면서 전지구적 전자광장(electoral agora)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광장이라는 공간형태의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는 ‘지구적 기억 공간’과 동일한 것처럼 보이나, 카스텔은 전지구적 전자광장이 불협화음과 갈등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연대와 소통’을 부각시키는 최근의 지구적 기억 공간에 대한 연구의 가정과는 차별적이다. 즉, 현실에서의 민족주의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더욱 증폭되고 강화된다는 것으로써, 현재의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디지털 기억공간은 배제와 투쟁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유사하게 클루버(Kluver 2001)는 사이버 발칸화(cyber-balkanization)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디지털 기억공간을 지구화와 지방화(localization) 간의 모순과 긴장이 응축된 공간으로 간주하면서, 그 안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성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 종족, 언어, 계급, 특정 정치적 입장에 기반하여 경계가 강화되고,

민족주의적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기억공간은 하나의 대안 공간으로서 누구의 의견이든 민주적으로 신속하게 제기할 수 있는 유용한 측면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너무나 빠르게, 신중한 숙의(deliberation) 없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현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은 첫째, 이슈의 특성상 응집과 확산의 속도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 어떤 담론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 둘째, 지속적으로 담론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숙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끼리끼리,’ ‘유유상종’ 등의 편파적이고 극단적인 입장이 확대 재생산되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억공간의 등장과 확산은 주체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역사와 기억의 전통적 공간은 주로 국가와 전문가들에 의해 생산된 ‘독과점적 상품’이 하향식으로 전달되고, 일반인들은 이의 수동적인 수요자 혹은 소비자에 머물렀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하지만, 라일리(James Reilly 2006)가 제기한 ‘역사 행동주의(history activism)’(혹은 기억 행동주의, memory activism)의 등장은⁶⁾ 역사와 기억에서의 새로운 행위 주체의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기억) 행동주의가 등장하고 확산되는 데는 냉전의 해체, 내면적 지구화 등 여러 구조적 요소가 작동하였지만, 디지털 기억공간이라는 매체환경의 등장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새로운 행위주체인 네티즌의 등장이다. 라일리의 표현대로 ‘대중적 정서(popular sentiments)’를 자극하고 동원하는데 디지털 기억공간은 매우 효과적인 기제이다. 일상적으로 평범하고 무관심하였던 시민들이 역사(기억) 행동주의자로 ‘탈바꿈’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기억공간은 도구론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시민(통칭하여 네티즌으로 부르기로 한다)은 단순히 국가와 전문가들이 생산 유통시키는 역사와 기억의 수동적 수요자·소비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역사와 기억의 주체적 생산자(prosumer)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또한

6) 라일리(189)는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적 ‘역사 행동주의’의 등장을 분석하고 있다. “History activism includes museums and academics documenting Japanese wartime atrocities in China, the redress movement demanding compensation for Chinese victims and popular protests against Japan over a range of issues. ... activists have subsequently mobilized popular sentiments, lobbied for official support and exacerbated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국경과 민족 등의 지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론적 기반을 가지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가능성이 곧바로 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존재론적 주체를 강화시키는 역작용도 우려된다.

도구적 차원에서는 자신들이 생산한 역사와 기억이라는 상품을 쉽게 전달·확산시킬 수 있는 매체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들은 거의 영(零)에 가까운 거래비용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기억이라는 상품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무제한적으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 또한 매우 손쉽고 간단한 행위인 ‘좋아요,’ ‘답변,’ ‘리트윗’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디지털 감성공동체(digital emotional community)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마치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근대 세계에서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시한 신문과 잡지로 대표되는 ‘인쇄자본주의(print capitalism)’의 21세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쇄자본주의가 근대세계에서의 ‘앤더슨적’인 민족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디지털 자본주의(digital capitalism)’와 디지털 기억공간은 새로운 민족주의의 배양처이자 유통공간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도구적·존재론적 차원에서 디지털 기억공간이,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경계를 극복하고 ‘지구적 기억공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디지털 기억공간도 민족과 국가라는 경계에 머물고 있으며, 지구적 기억공간과의 적절한 접합을 오히려 저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3장에서는 동북아의 지리적 공간과 디지털 기억공간이 만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등장과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Ⅲ.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등장과 전개

21세기 동북아시아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벌어진 한·중·일 네티즌들의 민족주의 갈등은 영토, 역사 및 사회문화 분야를 가로지르며 전개되고 있다. 부록의 <표 1, 2, 3>은 이를 분야별/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한·중·일 네티즌은, 역사와 영토 더 나아가 국가 혹은 민족의 문제를 둘러싸고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국 간의 경

쟁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이를 확대 증폭시켜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표출하고 있다. 이것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지나치게 강한 ‘배타적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chauvinism)’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21세기에 진행된 한중일 네티즌의 사이버 전쟁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우선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한·중·일 네티즌이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민족주의를 발현한 현황을 살펴본 후, 한중일 네티즌 사이의 갈등 사례를 분석한다.

1. 한·중·일 네티즌의 민족주의

- 한국

2004년 연예인 이승연의 위안부 누드 사건과 2007년 가수 박진영의 “한류에서 민족을 걷어내라” 사건은 한국 네티즌의 이중적 코드 즉 문화적 코드와 민족주의 코드의 긴장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위안부의 아픔을 누드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던 의도라는 제작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네티즌은 앞다투어 유명 연예인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위안부 문제를 ‘누드’라는 장르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 옳으나 그르냐의 논쟁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 한 인터넷 논객은 “역사적 상처를 누드에 접목시킨 의도야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네티즌이 이성적으로 성숙해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누드’의 최대 고객은 네티즌이다. 대체적으로 2030세대가 가장 큰 시장이다. ‘상업적 누드=수치’라는 공식 대신에 ‘상업적 누드=대박’이라는 경제원리를 가르친 주인공들이 이번 ‘위안부 누드’ 문제 제기의 주역이기도 하다. ‘성 개방’과 ‘상업적 누드’에 대한 관용과 ‘민족주의’ 성향의 분출은 표면적으로는 다분히 이중적이지만, 이들은 반(反)기성적 가치관(상대주의, 민족주의)에 따른 감정표현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입증했을 뿐이다.” 반기성적 가치관이란 흔히 신세대가 기성세대에 반항할 때 동원하는 자원이다. 이 논객은 민족주의 역시 반기성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의 ‘친미반북’과 ‘냉전’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반동으로 이들은 ‘민족주의’를 택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⁸⁾ 민족주의는 일반적 차원에서 논의한다면 반기성적 가치관이 아니라 기성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적

7) 홍윤선의 인터넷 김밥, ‘누드’와 ‘민족주의’ (아이뉴스 2004/02/23).

8) 2장에서 논한 냉전의 해체와 지구적 기억공간의 등장이 민족주의를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역설적인 논점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맥락에서는 민족주의가 반기성적 가치관이 된다는 것이다. 냉전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민족주의가 냉전의 해체로 인해 반기성적 가치관으로 등장한 것이다. 기묘하면서도 모순적인 한국적 맥락이며 동북아시아적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냉전의 해체로 인한 기억의 민주화와 시민권 확대가 민족주의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는 지구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이중적 코드가 한국의 디지털 기억공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2007년 가수 박진영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한류에서 민족주의 성향을 제거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이 한류를 문화적 소통으로 이해하지 않고 민족주의의 틀 안에 끼워 넣고 있다. 한국엔 민족주의로 먹고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한류가 대중문화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 만세’가 됐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반한류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티즌은 이 글에 수천건의 댓글을 올리며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다. 한 일간지(중앙일보 2007/02/09)는 사실을 통하여 “재일교포의 차별대우에 흥분하면서 국내에서 벌어지는 제3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는 눈을 감는다. 폐쇄 민족주의로는 살아갈 수 없다. 지구촌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단힌 민족주의는 설 땅이 없다. 물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벗어던지자는 게 아니다. 넘치는 민족주의를 덜어내자는 얘기다. 민족을 강조하다 보면 다원성을 해치게 된다. 민족이라는 허울 아래 시민적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를 또 얼마나 봐왔는가”라며 과잉민족주의의 폐해를 경고하기도 하였다. 물론 온라인에서 한류와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정제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가수 박진영의 주장에 대해 민족주의에 기초한 원색적 비난이 많았던 점이 과잉 민족주의를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이다.⁹⁾

이러한 점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과도 맥을 같이한다. 모방송사가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의 진실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과학적 검증’의 실체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련의 논쟁은 젊은 생명공학자들의 온라인 모임인 BRIC¹⁰⁾을 통하여 조작이 밝혀지면서 급기야 서울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어 허위로 판명되면서 종식된다. 하지만 황우석의 연구를 신뢰하는 혹은 ‘신뢰하고 싶어 하는’ 집단은 온라인을 통하여 계속 결집하면서 급기야는 2006년 1월 14일 황우석의 줄기세포 실험 재연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열었고, 이후

9) 위 사례는 류석진·조희정(2008) 112쪽에 기초하여 수정·증보한 것임을 밝혀둔다.

10) 출처: <http://www.ibric.org/>.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된 ‘황우석 팬덤’ 현상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를 한 온라인 칼럼니스트¹¹⁾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황우석 팬덤 현상에는 그와 그의 지지자들 간에 서로 관통하는 정서적 공감대가 존재하며, 절대적 신념 체계를 구축하는 재료와 소스의 원천이 존재한다. 나는 황우석 팬덤의 재료가 ‘애국주의’라면, 소스는 유사종교적 집단심리라고 말하고 싶다. 말하자면 황우석 팬덤은 과잉된 애국주의에 유사종교주의적 집단반응이 작용한 일종의 신화를 형성한다. 황우석 교수에 대한 난치병 환자들의 절대적인 신뢰는 그들이 애국자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치유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난치병 치유에 대한 순수한 희망을 과장되게 증폭시키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애국주의’라는 마취제이다. 알다시피 잘나가든 그렇지 않든 황우석 교수의 언변에는 늘 조국과 국가가 있다. 줄기세포의 쾌거를 알리기 위해 2004년 2월 미국 방문 후 귀국 소감에서 그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생명공학의 고지 위에 태극기를 꽂고 돌아오는 길이다’라는 애국주의적인 발언을 직설적으로 던졌다. 논문조작 파문 이후 그의 공식적인 기자회견 장에는 예의 ‘대한민국’, ‘우리 국가’, ‘우리 조국’이라는 수사들이 적절한 방어의 시기에 동원된다. 조국을 위해 일하는 황우석 교수는 과학자이기에 앞서 독립운동가이며, 학자이기에 앞서 탈식민주의 운동가이다. 애국주의와 유사종교주의 집단심리의 결합, 이것이 바로 황우석과 황우석 팬덤의 실체이다.(밀줄 필자 강조)

앞서 살펴본 한류가 문화민족주의의 온상이라면, 황우석 줄기세포는 과학민족주의¹²⁾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군위안부 누드 사건과 한류 발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간 역시 청년세대들에게 개인과 자유와 즐거움을 찾는 사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는 볼 수 없는 애국주의적 반응들이 결집되는 민족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네티즌은 개인적 권리와 사적 공간에 대한 절대적 우선성을 부여하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국가적 문제나 대외관계와 만나게 되면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라는 담론과 공간에 쉽게 휩싸이기도 하는 양면적 성격을 보여주는 야누스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마치 평소에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한 경험이나 국기에 대한 관념이 크게 없던 신세대가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와 거리응원에 태극기를 걸치고 국가와 민족의 가치를 새롭게 인

11) 이동연 칼럼, ‘황우석 팬덤’은 신우익주의 출현의 징후: 지금이야말로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다(오마이뉴스 2006/01/19).

12) 문화민족주의/과학민족주의 용어는 엄격한 학문적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문화와 과학을 소재로 한 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식하거나 국기를 중심으로 모이는 현상(rally around the flag!)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6년부터 시작된 3.1절 행사시 태극기 플래시몹 운동과 사이버 태극기 계양 운동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티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탈근대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성향이 있지만, 국가와 민족이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대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매몰될 가능성 또한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디지털 기억공간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 중국

중국 네티즌 또한 이러한 네티즌의 일반적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일당지배체제라는 중국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탈권위성과 민주성 등이 한국 네티즌에 비해 덜 나타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외 관계 혹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가 제기되면 유사한 행동양식을 보인다.¹³⁾ “젊은 층들은 서구문화를 좇기도 하지만 여전히 ‘중화민족은 다르다’는 강한 민족의식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조선일보 2004/01/08) 2003년 선저우 5호 발사 이후 이시하라 도쿄도 지사의 중국 폄하 발언, 9월 광둥성 내 경제특구 주하이에서의 소위 ‘일본인 관광객 집단매춘 사건’, 8월 하이룽 장성에서의 일본 생화학 무기가스 누출 사건, 다오위타이 (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반일을 외치며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라일리(Reilly)가 제시한 기억행동주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홍커(Red Hacker: 붉은 해커)부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해커의 정의는 매우 많지만 우리 눈에 해커는 인터넷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홍커는 이들 해커와는 다르다. 홍커 정신 속에는 더욱더 많은 애국열정이 있다.”(lion, 중국 홍커연맹 창시자) “중국 해커들은 강렬한 민족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국가 정세가 만든 것이다. 즉, 중국 해커들이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중국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이다. 중국 해커들은 가장 힘 있는 민간

13) 이하 중국 네티즌에 대한 서술은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원 자료에 대한 충실성이나 객관성에 대하여 각국의 전문가에 의해 이견이 제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국 언론 또한 중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사례를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변형/왜곡 보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위험성은 부분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과장 보도했을 가능성이다.

애국주의 정서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chinaeagle, 중국 매파연맹 창시자). 가히 ‘민족 행동주의(activism)’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홍커부대가 수행한 국방인터넷 전쟁은 대략 6번으로 보도되고 있다. 1차에서는 98년 인도네시아 폭동 시 화교의 피해를 둘러싸고 ‘중국 해이커 긴급회의 중심’을 결성해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 주요 사이트를 공격하였고, 2차는 1999년 5월 소위 미국의 유고연방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을 계기로 ‘중국 홍커의 조국통일 전선’을 결성 미국 주요 기관 사이트를 공격하였다. 3차는 99년 7월 대만의 리덩후이 총통이 양국론을 발표하면서 대만 주요 기관 사이트 공격으로 진행되었고, 4,5차는 일본 우익들의 난징대학살 사건 부인과 교과서 왜곡 등에 대항하여 2000년과 2001년에 진행되었으며, 6차는 2001년 미군 경찰기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홍커들은 이를 ‘5.1절 국방인터넷 전쟁’으로 이름 붙였다.

- 일본

일본에서의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2채널(2チャンネル)에 개설된 ‘K국(코리아를 빗댄 지칭)의 방식’(kanokuni.hp.infoseek.co.jp)¹⁴⁾과 더불어 재특회(在特会,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를 들 수 있다. 2채널은 탈냉전기인 동시에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후기인 1999년에 설립된 인터넷 게시판이다. 2채널은 2019년 현재에는 상당히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목표를 상실하여 보수화한 일본의 젊은 이들의 강렬한 배외인식(특히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을 집약·표명하고 있다. 한편 2019년 현재 일본 네티즌의 배외의식을 보여주는 단체로 2006년에 설립된 ‘재특회’를 들 수 있다. 야스다 고이치(2013)는 재특회에 대한 심층 취재와 분석을 통하여 이들을 ‘거리로 나온 넷우익’으로 칭하고 있다. 재특회 자체도 중요하게 관찰하여야 하는 사회적 현상이지만, 이들의 주된 활동이 디지털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기억공간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특회는 한국인 특히 재일교포를 상대로 한 혐오발언 이른바 ‘헤이트스피치’를 통해 일본사회에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선도하고 있다. 2채널이 주로 인터넷상에서 배외적인 인식을 전파하는 매체라면, 재특회는 온라인에서 시작하여 오프라인으로 뛰어나와 거리에서의 ‘집회’와 ‘운

14) 일본의 혐한 네티즌들이 개설한 사이트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s://mysteryreportage.tistory.com/119> (검색일: 2019.12.27.).

동'을 통해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선동하고 있다.¹⁵⁾

2. 한중일 네티즌의 갈등사례¹⁶⁾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든가 중국의 인터넷 동호회인 '애국자 동맹망'에 의한 신칸센 거부 청원운동,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 등의 활동은 한중일 삼국의 시민사회, 특히 네티즌들이 배타적 민족주의의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국민일보 2004/02/09). 다음에서는 역사, 영토, 문화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갈등 사례를 간략히 살펴본다.

2003년 7월부터 동북공정을 둘러싸고 발현된 일련의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민족주의적 갈등 또한, 학문적 진실성¹⁷⁾이나 외교적 노력에 의한 안정적 관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였다. 동북공정이 시작된 한참 후 최초로 국내 일간지가 중국의 동북공정 사실을 보도하고(중앙일보 2003/07/14) 방송사가(KBS 일요스페셜 2003.10.12.)가 동북공정에 대한 자세한 보도를 한 이후,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워졌다. '동북공정'을 키워드로 한 카페가 '다음'에 133개가 개설되었고, '고구려' 키워드로 1,170개 다음 카페가 개설되었으며, 다수의 카페는 민족 역사 바로 알기

15) 이와는 반대되는 온라인 운동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행동> (SEALDs: Student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EALDs> (검색일: 2020.01.07.))과 카운터스(Counters,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0801157400005> (검색일: 2020.01.07.))를 들 수 있다. 특히 카운터스는 반인종, 반혐오, 반차별을 모토로 활동하고 있다.

16) 이 절은 류석진·조희정(2008) 94-98쪽을 대폭 수정 축소한 것임을 밝혀둔다.

17) 학문적 논쟁과 관련하여 한중간의 고구려사 논쟁을 변경사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임지현(2016, 282-285)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사가 중국사나 한국사냐라는 비역사적 물음 앞에서 중국의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학은 국가의 경계에 따라 어김없이 판이 갈렸다. 근대의 산물인 국민국가를 먼 과거에 투사하는 시대착오적 인식론... 질문의 구도자체를 정치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의심하고 해체하는 ‘변경사’의 새로운 상상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지리적 신체(geo-body)’ 개념은 현재의 국민국가 영토 중에서 변경의 일부가 다른 역사공간이었다는 주장에 접하면 마치 자기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받는 듯한 집단 심성을 가리킨다. “민족적 혹은 국가적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계지역의 역사를 자국사에 편입시켜야만 안심하는 ‘지리적 신체’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학설의 적대적 차이를 비적대적 차이로 전환시켜 합리적 논쟁거리로 만드는 데는 트랜스내셔널 역사의 지류인 ‘변경사’, ‘중첩된 역사(overlapping history),’ 동아시아사나 유럽사와 같은 ‘지역사(regional history)’의 시각이 필요하다. 변경사의 시각은 고구려를 떼어 내는 그 아픔이 실은 민족주의가 만들어 낸 역사의 가상현실에 지나지 않으며, 그 가상현실 밑에 은폐되어 있는 역사의 비민족적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가 목표이나 사이버 의병, 고구려 지킴이 등의 동북공정 전문 카페도 생겨났고, 고구려를 밑그림으로 하는 10만원권 사이버화폐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국 네티즌들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중국의 신문과 방송 등 언론들은 ‘동북공정’에 대해 침묵한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으로 와글와글하다. 한국의 동북공정 관련 언론보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일일이 토를 달고 반박한다. 13일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닷컴의 ‘고구려 카페’에는 중국 네티즌이 올린 2,750건의 주장과 2만9천3백29건의 댓글이 달려 있다. 공식 언론이 침묵하는 것과 달리 사이버 상에서는 고대사 설전이 뜨겁다. 젊은 층이 주류인 이들 네티즌은 중국 사회과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 북부를 중국 땅으로 가져오는 한반도 공정을 폄하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경향신문 2006/09/13).”

동북공정 문제가 양국의 외교 차원과 역사적 차원에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민족주의적 발현으로 악화일로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달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정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국정부의 외교적 공식적 노력에 일정한 정도 족쇄를 채워서 ‘역사 행동주의’의 대중적 정서 동원 효과를 가져오면서 외교 정책 상에서의 국가의 운신 폭을 좁게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대결은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소위 한중일 네티즌들의 ‘사이버 임진왜란’에서도 극적으로 발견된다. 2004년 9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으로 촉발된 ‘사이버 임진왜란’에서 “양국 네티즌은 서로의 문화를 비하하는 사이트를 잇따라 열고,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과도한 접속 부하로 다운시키는 ‘트래픽 폭격’을 퍼부었다(서울신문 2004/01/12).” 일본의 한 네티즌이 한반도가 삭제된 지도를 한국 비하사이트 ‘K국의 방식’에 올리자 한국 네티즌은 ‘원폭투하 기념우표’를 만들고 ‘K국의 방식’에 대응하는 ‘J국의 방식’ 사이트를 만드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비이성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중국의 네티즌들도 가세하였다. ‘일본이 망하지 않으면 세계에 평안한 날이 없다’, ‘한국 공군이여 일본기를 격추하라, 중국인민은 너희를 지지한다’ 등 중국 정부와 언론의 차별한 대응과는 달리 자극적인 언사들이 보이고 있다. 즉, ‘중국 네티즌, 한국인들 독도 대응 잘 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 언론에는 소개되고 있다(오마이뉴스 2005/03/18). 신랑망(新浪網)은 사태가 커지자, ‘한일독도문제’라는 별도의 홈페이지(news.sina.com.cn)를 만들어 관심을 표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16-17일 이들

간 1200여건의 댓글을 올려 ‘한국인들을 배우자. 한국을 지지한다’, ‘다오위다오 문제에 소극적인 중국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의 모습이 부럽다’ 등의 글을 남겼고 신화망(중국 신화사 인터넷신문)에도 ‘중국과 한국이 연맹관계를 만들자’, ‘(중국어) 한국을 도와야 한다’, ‘일본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자’ 등의 글을 통해 반일감정을 확산하고 있다(한겨레 2005/03/25). 다시 말하여 중국 네티즌과 한국 네티즌은 ‘반일’에 있어서만큼은 유사한 행동을 보인다. 하지만 그들도 동북공정 등의 양국에 민감한 이슈에 있어서는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초한 적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삼국 네티즌의 기억전쟁은 2007년 초 ‘고노’ 담화의 수정 여부와 위안부에 있어서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성 여부를 둘러싸고 촉발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과 이에 연이은 미국의 뉴스 채널 CNN의 네티즌 여론 조사과정에서도 나타났다. CNN은 2007년 3월 4일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군위안부에 대해 다시 사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기사가 담긴 인터넷 페이지에 찬반 투표 코너를 만들고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중 위안부 문제에 다시 사과해야 하는가? (Should Japan apologize again for its World War II military brothels?)’라는 질문으로 설문을 하였다. 한국의 디지털 공간에서는 CNN 사이트의 주소와 함께 ‘국민 여러분 1분만 투자해 주세요. 일본에 밀리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 줍시다’ 등의 내용이었다. 가히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전쟁 양상까지 치달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한국의 사드배치를 전후로 한중 네티즌 사이에서는 안보문제를 넘어서서 양국의 문화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기도 하였다. 소위 한류에 대한 혐한류의 흐름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감지되기도 하고, 네티즌이 주도하는 롯데마트와 롯데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중화주의에 대한 한국 네티즌의 우려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2018년 10월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문제판결 이후,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은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정부가 이에 맞서 한일 GSOMIA 연장을 연계시키기도 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증대된 한일 민간교류 등을 통하여 상호 간의 이해와 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져 국가 간의 공식관계와는 별개로 한일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일본제품 구매와 일본여행을 반대하는 소위 ‘NO JAPAN’ 운동¹⁸⁾이 네티즌 주도로 디지털 공간을 통하여 빠르고 대규모로 전개되었

18) 출처: <http://nojapan.kr/> (검색일: 2019.12.27.).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nojapan을 통하여

고, 이는 여행객 감소, 유니클로 불매 운동 등으로 불길같이 번져 나갔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운동이 일본의 네티즌 사이에서도 일정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동북아 삼국 네티즌들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쟁점화되고 있는 현상을 ‘사이버 민족주의 증후군(cyber nationalism syndrome)’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백지운 인천문화재단 연구원은 “사이버 공간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게 해주기보다 비슷한 입장을 강화하는 속성으로 가다보니 민족주의 정서가 더욱 극단화, 저급화된다”고 지적했다. 임지현은 “삼국의 누리꾼은 한 국가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되면 나머지 국가의 민족주의도 도드라지고 이에 모든 국가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적대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동아일보 2006/09/13).

동북아라는 지역적 특성, 지구적 기억 시간대와의 차별성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매체적 특성에 따른 기억의 공간 구성과 기억의 재현 방식은 상호공존이 가능한 민족주의 형태로 발현되기 보다는 배타적이고 적대적이며 독선적이며 감성적이고 말초적이기까지 한 민족주의 형태로 발현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3국의 현실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글을 마치며

특정한 역사 사건을 계기로 혹은 이 사건에 대한 해석과 기억이 내포하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둘러싸고 한중일 삼국 네티즌은, 개별국가의 내생적인 연원으로부터 그와 동시에 적대적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민족주의를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표출하면서 갈등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상호공생적인 관계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동북아시아의 기억 지형과 국가 간의 관계를 결정지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물론 개별적인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지구적 기억공간 속에 위치 지우면서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보편적 규범에 기초한 평화와 역사의 화해를 이루려는 시민사회에서의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배적인 경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 간의 공식외교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는 민족주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의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발목을 잡힐 수도(involuntary defection) 있고, 더 나아가서는 특정한 극단 세력이 과다하게 동원·대표될 때, 외교가 기반하여야 하는 국내정치에서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록 1,2,3〉에 나타나는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될 때의 특징은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¹⁹⁾ 1)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담론이 증폭되는 특징을 가진다. 네트워크 효과는 비단 민족주의 담론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민족주의 담론의 경우 이슈의 특성상 응집도와 확산속도가 크고 빠르게 나타난다. 2) 사례의 선별성을 통해 극명한 모순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역사와 기억의 선별적 습득과 활용이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자신들이 선호하고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호명하고, 이를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현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강화시킨다. 3) 주로 갈등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영토, 역사, 그리고 사회·문화를 비롯하여 스포츠 대결 등의 국제행사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토와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기억의 역사에 대한 현실적 재의제화 과정으로서 그 자체가 ‘기억의 정치화’ 혹은 ‘기억전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민족주의의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발현을 통하여 기억의 재영토화 경향이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 4) 역사문제는 영토문제만큼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영토문제와 중첩되어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삼일절과 광복절, 중국은 전승일, 일본은 원폭투하일 등을 기점으로 역사교과서, 과거사 책임 문제 등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극렬한 사이버 공격이 반복되고 민족주의가 확산된다. 특히 한국의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와 일본 니차네류(2ch)와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이 갈등의 주요 공간이자, 서로의 주요 공격 대상이다. 5)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갈등은 혐한, 혐일, 혐중 등 상대국에 대한 말초적인 감정적 혐오와 배외주의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 디지털 기억공간에서는 긍정적 피드백을 가져오기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6) 스포츠 관련 국제대회에서 상대국과 대결할 경우 승패를 소재로 감정적인 공격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WBC, 올림픽, 월드컵 등 중요 국제대회에서의 대결 결과에 대한 격렬한 반응이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 승리의 세리모니를 통해 영토나 역사적 문제에 대한 감정적 자극과 국제적 호소를 요구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3,4위전에서의 승리 후 ‘독도는 우리 땅’ 포스터 세리모니를 둘러싸고 벌어진 IOC의 개입, 한일간의 외교분쟁과 연이은 한일 네티즌의 갈등과 미백악관 청원,

19) 여섯 가지 특징은 류석진·조희정·박설아. 2013, 164-172를 수정·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의 독도 표기 지도의 사용을 둘러싼 논란 등도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구적 기억공간의 출현은, 기존의 민족과 국가를 단위로 집단적으로 기억되고 호명되었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다양한 세부 집단과 개인의 책임성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진취적이다. 제국주의 제노사이드,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대인 희생을 중심으로 한 홀로코스트 담론과 기억의 독보적 지위를 허물고, 새롭게 밝혀지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이 새롭게 조망되고 위치 지워질 수 있게 된 것도 지구적 기억공간의 출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홀로코스트에서의 유대인 학살 기억을 넘어서, 소련 적군에 의한 폴란드인들의 희생, 아르메니아인 학살, 제국 시기 선주민 학살과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의 오래된 사건들이, 새롭고 다양한 역사와 기억의 문제로 서로 얽히고 섞여 제기되면서, 지구적 기억공간에서 기억의 시민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기억의 담론은 민족과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구적 기억공간의 등장이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미국 글렌데일의 소녀상은 제노사이드를 경험한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역공간이었기에 가능했었다는 설명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아직도 민족과 국가라는 집단적 단위를 중심으로 가해와 피해의 구도가 설정되는 상태이고, 지구적 기억공간이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른 기억의 시민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동북아 디지털 기억공간에서는 이러한 현실공간의 국가적·지역적 특성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극히 배외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고 있는 민족주의는, 현실 민족주의의 징후(symptom)인 동시에 현실 민족주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

현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될 때 나타나는 한중일 네티즌의 정체성은 다음 세 차원에서 탐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매체적 속성, 즉 시공간을 초월하여 유통되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아이디어가 첫 번째 속성이다. 즉, 대상과 내용의 문제이며, 이는 매우 구성적인 동시에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의 측면에서 디지털 공간을 통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네티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주체와는 달리 이 네티즌들은 특정 집단으로 호명할 수 없고 비정형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계기적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사회세력들이 네티즌으로 참여 혹은 동원될 것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셋째, 이들의 행동 양식은 전통적인 사회운동 혹은 집단행동의 논리와는 차별적인,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감염병적 특성(viral)을 보인다. 어떠한 방식과 경로를 통하여 확산될 것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이에 대응하기도 매우 어렵다.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나타나는 네티즌들 사이의 민족주의적 언어와 감정적인 대응과 말초적인 제안들은, 삼국간의 증대된 교류와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불친근함과 불편함의 정도를 넘어 적대적 관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적대감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투영되어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불건전한 것이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선동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치인이 등장하고 이들이 자신 혹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디지털 기억공간에서의 동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확산하고 정치적 입지를 확대시키려는 전략을 편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의 문제에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동북아의 미래를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동북아역사재단 한일문제연구소 편. 2018. 탈냉전기 동아시아의 민족주의 갈등과 해결. 동북아역사재단, 157-198.
- 류석진 · 조희정. 2008. 온라인 공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에 대한 연구: 게시판과 동영상 UCC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25(4), 83-119.
- 류석진 · 조희정 · 박설아. 2013. 온라인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가능성: 한 · 중 · 일 온라인 갈등 유형과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32(3), 153-186.
-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 김현욱 옮김. 2013. 거리로 나온 넷우익: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보수가 되었는가. 후마니타스.
- 임지현. 2016.11. 전지구적 기억공간과 희생자의식: 홀로코스트, 식민주의 제노사이드, 스탈린주의 테러의 기억은 어떻게 만나는가?. 대구사학 125, 110-134.
- _____. 2016.12.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사학자의 예고 히스토리. 소나무.
- _____. 2019. 기억전쟁: 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Humanist.
- 조희정. 2018. 온라인 공간의 한중일 민족주의 갈등과 탈민족주의.
- Castells, Manuel 저. 박행웅 역. 2004. 인터넷 갤럭시. 한울.
- Kluver, Alan R. 2001. New Media and the End of Nationalism: China and the US in a War of Words. Mots Pluriels. 18.
- Reilley, James. Sep. 2006. China's History Activism and Sino-Japanese Relations.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4(2), 189-216.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

-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
- 중앙일보 <https://joongang.joins.com>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KBS <http://www.kbs.co.kr>

● 투고일: 2020.01.15. ● 심사일: 2020.01.17. ● 게재확정일: 2020.02.10.

부록20)

〈표 1〉 한·중·일의 역사 분야 갈등(2002-2016년)

주제	갈등 내용
교과서	[한] 왜곡과 관련하여 사이버 시위(2001년 3월) [일] 산케이신문 등은 사이버테러이므로 처벌을 요청(2001년 3월) [중] 일본이 난징 학살 등을 포함한 식민지 시절 역사 왜곡 내용의 교과서 승인한 것에 대해 커뮤니티와 메시지를 통해 분노 표출(2005년)
삼일절	[한] 태극기 몹(mob) 운동, 사이버 태극기 게양 운동(2006년)
광복절	[한] 세계국학원청년단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버의병(cafe.daum.net/cybershinsi)이 태극기몹 행사를 처음 주도(2004년) [한] 포털 파란은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방치되어 있는 북관대첩비 반환 촉구 서명 진행. 일제 강점하의 독립운동노래를 편곡하여 mp3와 휴대폰 벨소리로 제공. 팔일오 삼행시 짓기 이벤트. 다음은 나라사랑 사진 공모(2005년) [일] 2ch과 [한] 디시인사이드 간에 서로 게시판을 공격(2007년) [한] 독도-올림픽-싸이를 주제로 한 사상 최대의 사이버 대전. 인터넷 카페 넷테러대응연합(넷대연)은 [일] 2ch에 9월 공격 예고(2012년) [일] 태권더 박이라는 일본 작가의 혐한 만화 게시. 대통령 비하 내용(2015년)
위안부 문제	[일] 커뮤니티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외설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SNS에 유포(2003년 2월) [일] 미국 백악관 청원사이트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 찬성 청원'에 12만 명 이상이 청원(2012년 5월, 2014년 1월) / 한국의 반대 청원에는 10만 명이 참여(2014년 1월) [한] [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갈등 최고조(2015년 12월)

〈표 2〉 한·중·일의 영토 분야 갈등(2002-2016년)

주제	갈등 내용
독도 문제	[일] 게임업체 시스템 소프트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다는 가상 스토리를 담은 '현대대전략 2002' 발매. 이어 발매된 '현대대전략 2005: 호국의 방패 이지스함대'는 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하고 제주도까지 공격하는 내용. '현대대전략 2009'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2002년)

20) 2013년 이전까지의 자료는 류석진·조희정·박설아(2013, 165-171)에서 전면 인용, 2014년부터의 자료는 조희정(2018, 187-191)에서 전면 인용

주제	갈등 내용
	<p>[일]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는 일본땅' 발언 때문에 사이버 임진왜란 촉발 / K국의 방식 vs. J국의 방식 사이트 개설, 기념우표 발행(2004년 9월)</p> <p>[중] 한국 지지 입장 표명. 신라망에 한일 독도문제 페이지 개설(2004년 9월)</p> <p>[한] 싸이월드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사이버 서명 캠페인 진행. 2005년 싸이월드 댓글 주제별 순위는 1위 '독도 지킴이 서명 동참'(83,527명), 3위는 3절 독도 태극기 달기(19,698명). 2004년 1월에는 독도 미니홈피 개설. 네이트온은 대화명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진행(2005년 3월)</p> <p>[중] 반일 감정 및 한국 지지. 신라망에 '한일독도문제'를 주제로 사이트(news.sina.com.cn) 개설. 2일간 1,200여 건의 댓글로 한국 지지(2005년 3월)</p> <p>[한] 다음(Daum)이 포털 최초로 '일본 독도 근해 배타적 경제 수역 탐사 논란'에 대응하여 KBS와 함께 3개월간 독도 현지 실시간 생중계(issue.media.net/J_apan_eez/index.html). 속보, 포토갤러리, 카페 및 블로그, 독도사랑 메시지 서비스. 독도사랑 메시지에만 하루만에 5만여 개 댓글. 아고라 청원에는 2,200여 명이 청원(2006년 4월)</p> <p>[일]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일본 영토 표기를 새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명기하겠다는 방침 전달. 세컨드라이프에서 일장기를 단 탱크로 사이버 독도에 몰려와 총격과 핵폭탄 공격. 경복궁과 경희루 앞에 우익 선전차량을 몰고 와 태극기에 불을 지름(2008년 7월)</p> <p>[한] 블로그 독도 혹은 다케시마(dokdo-or-takeshima.blogspot.com)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설문. 369,533명 참여. 아바타를 배설물 모양으로 변하게 함. 아고라에 사이버 독도 경비시스템 자금 모금 운동. 1억 원 모금액 달성(2008년 7월)</p> <p>[한] 하나포스 닷컴이 '독도가 달린다(dokdo.andu.hanafos.com)페이지' 개설. 서명, 달리기 이벤트, 온라인 1인 시위, 오표기 찾기 캠페인 참여. 다케시마의 날 찬반 투표에 한국 1만 명 참여/일본이 몰리면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찬성으로 역전(일본 IP 4만 명)(2009년 2월)</p> <p>[일] 문부성이 2011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발표를 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 포함. 요미우리와 아사히 신문이 2008년 7월 15일 당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 명칭을 요구하자 한국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발언했다고 보도(2010년 3월)</p> <p>[한] 이명박 대통령 독도 관련 발언. 3월 16일 청와대 해명(2010년 3월)</p> <p>[중] 반한 감정 표현, 반일 감정 표현(2010년 3월)</p> <p>[한] 중국에서 열린 2010 아시아태평양신인가요제 출전자수 정주영이 생방송 중에 '독도 belong to' 문구와 태극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독도 퍼포먼스를 한 동영상 이 포털 토론방에 게시됨. '독도청년'으로 인기를 끄(2010년 5월)</p>

주제	갈등 내용
	<p>[한]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기 비난, 주일대사 소환 요구(2010년 5월)</p> <p>[한] 소셜커머스 서비스 위메프에서 독도 캠페인 실시. 100만 명이 100원씩 구매하면 1억 원을 모금하며 세계 주요 언론에 '독도는 우리땅' 광고 실시(10번째 광고는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게재). 소셜미디어로 확산되어 14시간 만에 18,841명이 구매(2011년 2월) 독도문제와 이종격투기 임수정 선수 구타 사건으로 갈등 고조(2011년 8월)</p> <p>[일] 배우 : 한류 편중 발언(2011년 8월)</p> <p>[한] 디씨 코깅과 넷 테러 대응연합이 2천 명 15일 오후 3시 공격 선포, 일본인 개인정보 해킹 제안. SNS 프로필 태극기 몹(2011년 8월)</p> <p>[일] 후지 TV 시청 거부, 야후 재팬 댓글 시위. 한국의 네티터 대응연합 운영자 아이디 해킹(2011년 8월)</p> <p>[한] 가수 싸다가 트위터에서 다케시마 발언을 한 일본인에게 욕으로 응수(2012년 8월)</p> <p>[한] 게임 '네이버필드'에서 독도에 침입한 일본 군함을 격침하는 내용 포함. 역사 게임 '거상'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는 안용복을 캐릭터로 등장시킴. MMORPG 게임 '프리우스'에서는 배경에 독도를 추가하고 배경음악으로 애국가를 삽입. 비행전투게임 '데드식스'는 일본 함대를 격파하고 독도를 지키는 임무를 포함. 모바일 게임 '카오스 & 디펜스'는 새 콘텐츠로 '독도수호대'를 추가(2012년 9월)</p> <p>[일] 모바일 게임 '다케시마 쟁탈전'에서 독도 영유권 다툼을 소재로 다룸(2012년 9월)</p> <p>[일] 시네마현은 2006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 2ch도 동참하면서 무력사용이나 국교단절을 주장. 아베 총리를 친한파라고 비난(2013년 2월)</p> <p>[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21세기 신헤이그 특사'로 디지털 단원 모집. 스마트폰, PC, 디지털 기기, 소셜미디어 프로필과 배경화면에 독도 사진을 넣고 최소 5명에게 확산하는 역할 담당(2013년 3월)</p> <p>[한] 일본 정부가 2015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령한 것이며,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위안부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반일 감정 격화. 위무성은 사이트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2014년 4월)</p> <p>[한] 외교부가 모바일 독도 홈페이지 개설(2014년 5월)</p> <p>[한] 독도학교 홍보대사인 배우 조재현이 유튜브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동영상 업로드(2014년 6월)</p> <p>[한] 정부가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린 영어판 독도 홍보 동영상의 조회수가 일본 정부의 것보다 5.7배 이상(2014년 8월)</p>
동북공정	<p>[한] 2002-2004년 동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한국 내에서 고구려 연구 부족을 비판하면서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2004년 8월)</p>

주제	갈등 내용
문제	[중] 길림의 고구려 고분 2곳의 벽화가 도굴되어 한국으로 갔다는 뉴스에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2010년 말)
조어도 문제	[중] [일] 동중국해 조어도(센카쿠)를 둘러싸고 양국간 구글맵 위에 국기 꽂기 경쟁(중어, 일어, 영어, 한국어 동원)(2010년 5월 20일, 9월 7일) [중] 반일시위. 외국 기업과 상점에 대한 폭력화. 웨이보에 일본내 반중 시위 사진이 유포됨 (2012년 9월) [중] 베이징 한 식당에 '일본인과 필리핀인, 베트남인 그리고 개는 출입금지' 표기(2013년 2월)
동해 문제	[한] 한국 알리기 동호회 '반크(VANK)'는 론리 플래닛에 이메일로 일본해 대신 동해 표기를 요구하여 병기하기로 결정(2000년 8월 내셔널지오그래픽, 12월 라이코스가 동해 표기)(2001년 1월) [한] [일] 국제수로기구(IHO) 연차총회를 앞두고 한일 누리꾼 75,000명이 백악관 We the people에 '미국 교과서 동해 표기 바로잡기' 서명 청원(2012년 4월)
백두산 문제	[한] 장춘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의 백두산 세러모니(2007년 1월) [중] 패러디 사진 유포(2007년 1월)

〈표 3〉 한·중·일의 사회문화 분야 갈등(2002-2016년)

주제	갈등 내용
문화일반	[중] 역사적 인물의 출신과 문화원류를 한국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류의 허위 보도가 범람하기 시작(2007년) [중] 멜라닌 분유 파동 등 식품안전문제 발생(2008년) [중] 작가 이외수가 트위터에 한글 공정 비난글 게시(2010년) [중]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구려 벽화 반환 요구(2010년) [일] 오사카 시장스시 집의 초밥테러(2016년)
문화재	[중]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세계무형유산유산에 등재된 것에 대한 비난(2007년) [중] 조선족 농악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비난(2009년) [중] 한국의 단오절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비난(2009년) [중] 한국의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비난(2009년)

주제	갈등 내용
	[중] 한국의 전통 침구 세계무형유산 등재에 대한 비난(2010년)
미디어	<p>[중] 한국 미디어의 반한 감정 기사화 이후 중국 주류매체에서 보도(2008년)</p> <p>[일] 야후 재팬이 혐한 혐중 뉴스 공급자(‘서치나’)와 계약 해지(2015년 9월)</p> <p>[일] [중] 혐한혐중 매체 ‘서치나’, ‘레코드 차이나’의 지속적인 혐한, 혐중 기사 게재(2015년 11월)</p> <p>[일] 후지 TV, 한국인 인터뷰로 혐한 조작 자막 방송(2015년)</p> <p>[일]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혐한 글 다수 게시(2016년 6월)</p> <p>[한] 한국의 유저가 일본 야스쿠니신사에서 포켓몬고를 점령하면서 아베를 비판하는 네임 사용(2016년 7월)</p>
동영상	<p>[한] 반크는 14편의 영문과 한글 동영상을 제작하여 한국 소개(2009년 3월)</p> <p>[일] ‘니코니코 동영상’은 ‘약관 위반’을 이유로 혐한 단체 재특회의 채널 폐쇄(2015년 5월)</p> <p>[일] 법무성은 ‘니코니코 동영상’에 게시된 ‘혐한시위 동영상’에 대해 피해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첫 삭제요청(2016년 2월)</p> <p>[일] 오사카에서 혐한 시위와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 시행 후 ‘니코니코 동영상’에 혐한 시위 동영상 업로드(재일 한국인들이 신고)(2016년 7월)</p>
엔터테인먼트	<p>[중] 드라마 ‘대장금’ 비판을 계기로 반한류 출현(2005년)</p> <p>[중] 슈퍼주니어 공연장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이 포털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류 스타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10만 여명이 참여하는 격렬한 감정 논쟁이 전개됨. 6월 9일에 한국정부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6·9 성전’으로도 부름(2010년)</p> <p>[일] 배우 타카오카 소스케가 한국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하는 후지TV를 비난하면서 반한류 트윗을 게시하였고, 이에 네티즌이 동조하면서 후지 TV 본사 앞에서 시위를 개최하여 5천여 명이 참여하였고, 해당 동영상은 10만 명 이상이 시청(2011년 8월)</p> <p>[일] 후지 TV의 주요 광고 스폰서인 생활용품업체 KAO 및 홈페이지에 동해라고 표기한 경월소주의 일본 판매원인 산토리사에 대한 불매운동(2011년 8-11월)</p> <p>[일] 독도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던 한국 배우 김태희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로토제약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2012년 3월)</p> <p>[일] 한국이 일본에 한류 확산을 위해 1조 6천 억 엔이라는 돈을 지불했고, 일본의 친한파 방송국 사장이 어린시절을 한국에서 지냈다는 루머 등이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 확산(2012년)</p> <p>[일] 박유천 사건에 대한 혐한 글 게시(2016년 6월)</p>

주제	갈등 내용
만화	[일] 험한류 만화 출판(2009년 4월)
영화	[한] 풍신수길 부하로 일본 영화에 출연한 최홍만에 대한 비난(2009년 5월)
커뮤니티	[한] 네이버에 공식 친일 카페는 3곳. 비공식 카페는 10여 개. 광복절을 맞이하여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 등을 게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6-8월 사이에 19,000 건의 친일, 한국 비하 게시물이 게시판과 카페 등을 통해 확산됨(2012년 9월) [한] 네이버에 '한국공식안티카페2'라는 카페 개설. 한국인에게 창씨개명 요구. 회원수 156명(2013년 2월)
스포츠	* 동계아시안게임(2007년) [한] 선수들이 백두산 세러모니 * 베이징 올림픽(2008년) [중] 한일 경기에서 일본을 응원 [한] 성화봉송 중 중국유학생과 한국 유학생 충돌, SBS의 올림픽 개막식 장면 사전 누출 * WBC(2009년 3월) [일] 야후 제팬에서 한일전 세 번째 대결의 승자에 대한 설문조사 * 동계올림픽(2010년 3월) [일] 2ch에 벤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김연아 연기에 대한 악평을 올린 것에 분노하여 한국이 행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2ch 의 3시간 만에 김연아 비난글 1,200건 이상이 게시됨. 33개 게시판 중에 30개 게시판 마비 [한] 2ch 사건 직후 반크도 공격받음. 포털에 '정당한 테러 대응 카페' 개설(5일만에 6만 5천 명 가입) [한] [일] 간 3·1절 사이버전쟁 움직임 * 남아공 월드컵 [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스폰서를 맡고 있는 스포츠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 비하 축구 광고 게시. 2ch의 '뉴스속보', 'VIP' 게시판 코너에 한국 8강 탈락을 기뻐하는 글 다수(2010년 5월) [한] 대일 파라과이 역전 승리에 대해 격려글이 게시된 이후, 일본에 의해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 서버 다운(1,000여 개 글 게시)(2010년 7월)

주제	갈등 내용
	<p>[일] 메이저리그의 일본 투수 다르빗슈가 한국 비하 발언을 한 일본 네티즌에게 한국 옹호 발언으로 반박(2012년 5월)</p> <p>* 런던 올림픽(2012년 8월)</p> <p>[한] 남자축구 한일전에서 일본에 승리한 것을 자축. 박종우 독도 세러모니로 인해 동메달 시상식에 참석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일본의 욕일승천기를 예로 들어 항의. 아고라에서는 박종우를 옹호하는 서명과 청원 전개</p> <p>[일] 2ch에서 한국 우세를 수긍하면서도 자국 선수를 비난</p> <p>[중] 박태환-쑤양 대결에 대해 온라인 민족주의 갈등 격화</p>
재난·사고	<p>[한]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 대해 포털에 혐종 악플이 게시되었고, 이 글이 중국 차이나런(chinaren.com)에 번역 게시됨(2008년 5월)</p> <p>[중] 난징대학살의 주범은 한국인이라는 콘텐츠가 범람함(2009년)</p> <p>[한] 동일본 대지진때 포털에 혐일 댓글이 게시되었고, 이 글이 일본 투채널에 번역 게시됨(2011년 3월)</p> <p>[중] 메르스 확산의 탓을 한국으로 돌리며 혐한 여론 게시(2015년 5월)</p> <p>[일] 주일 한국문화원 방화 테러 용의자 한국인(2015년)</p> <p>[일] 한국내 메르스 확산을 응원하며 혐한 여론 주도(2015년 6월)</p> <p>[일] 구마모토현 강진에 보내진 한국의 구호물품에 대해 일본이 반쓰레기 물품을 보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악플이 게시되었고, 이 글이 한국 커뮤니티에 번역 게시됨(2016년 4월)</p>

| Abstract |

A Study on the Manifestation of Nationalism in Digital Memory Space: with a focus on the conflicts among and identities of Korea/China/Japan Netizens

Lew Seokjin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identify how the nationalism is manifested in digital memory space with the case study of conflicts among Northeast Asian (Korea/China/Japan) Netizens. The distinct features of nationalism as is manifested in digital memory space are, 1) because of the network characteristics, the condensation and diffusion of the (dis)information and discourse are very rapid and wide; 2) the area of conflicts covers the issues of territory, history, and society/culture; 3) the emotional hatred and jingoistic languages against each other are used in digital memory space. In order to determine the identities of netizens and to explore the consequences of these conflicts happening in digital memory space upon the real political/social/economic world, four aspects should be further investigated, 1) who are the netizens involved in these conflicts; 2) how do they behave as a collectivity and communicate; 3) what are the proper relationship with the real world nationalism; and 4) how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can and should respond to these viral mobilization in order to achiev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Key words〉 Digital Memory Space, Nationalism, Eurocentric Memory Space, Global Memory Space, Northeast Asian Memory Space, Netizen